

전북교육청, 사학개혁 추진 공허한 메아리 그쳐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가 이 총장에 대한 암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김승환 교육감, 취임부터 강도 높은 추진 의지 밝혀
개임과하고 비리 관련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
“사학교사 채용비리 - 교직원 금품수수 현행법상 최고 불이익 줄 것”

사학비리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부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완주 한국개임과하고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가 불거지자 ‘사립학교법이 사학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당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다”며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보호법이 아닌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제우지 못하는 상태”라며 “학교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회는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선 2014년 도내 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비리와 교직원의 금품 수수가 이뤄진데 대해 “사학재용비리-금품수수 현행법상 최고 수준 불이익 줄 것”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역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교사를 채용해 학생들의 미래를 막친다는 것은 학생 교육을 방지하는 행위”라며 “전북에서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인가?”라며 “해당 학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확한 계획을 세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

“사학 비리 강력한 제재를”

전교조 단체협약 안건으로 내세워… 도교육청 지도 감독 ‘소홀’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현황

*징계종류-처분요구(외결내용) 순으로

- 피면 - 4명(해임 1, 정직 1, 경고 1, 주의 1)
- 해임 - 1명(정직 1)
- 강등 - 없음
- 정직 - 9명(감봉 2, 견책 3, 불문경고 3, 경고 1)
- 김봉 - 10명(감봉 1, 견책 3, 불문경고 1, 경고 2, 주의 1, 퇴직으로 인한 처분불가 2)
- 견책 - 16명(견책 1, 불문경고 3, 경고 11, 주의 1)

<2014. 1. 1.~2016. 6월 자체감사 처분요구건>

사립학교 개혁 목소리만 있고 관련대책 마련이 부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개혁에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사립법인에 대해 인사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과의 정책업무협의회에서 사립학교 인사위 규정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지부가 내세운 안건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게재, ▲매년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이행여부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전북지부가 내세운 14개 안건 중 3건을 제시해 사립학교 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반증을 보인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학은 교원업무정상화지침 또는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등 개혁 정책을 따르지 않으며 배짱을 부리고 있어 이에 근무하는 교원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업무 정상화 지침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구체적 실태 파악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강제 보충수업, 아간지를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처럼 먼 산 바라보듯 하지 말고 법률이 정하는 바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공정에 준하는 개혁정책을 펼쳐 가야 할 것”을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여름방학스피치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 CBO, 2%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인력(能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부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파워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65일스피치카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 경험과 노하우로 양차고 재미 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동랑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 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3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